

임실 치즈월드 확장 탄력... 관광거점 조성

전북자치도,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전국 3개소 선정에 임실군 포함... 5년간 국비 60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총 3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 임실군이 포함됐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6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사업비 142억원(국비 60, 도비 18, 군비 60, 민자 4)을 투입해 치즈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팝 어드벤처 및 치즈스테이 조성, 치즈 콘텐츠개발 및 브랜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희화된 관광자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굴 기획하고, 정부는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 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문체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 주기에 걸쳐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받는 등 지역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공모 선정에 임실군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공모 시행 전부터 시군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실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현장평가에도 적극 대응했다. '매일매일이 고소한 상상의 세계 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이라는 주제로 선정된 본 사업은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와 인근 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유럽형 정미원을 유기적으로 연

계한 '치즈월드'로 확장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관광거점으로 거듭나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의 종합 지원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변화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사업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 치즈를 주제로 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지속 제공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0년 남원, 2021년 진안 이 계획공모형 관광지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제19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20일 오후 4시에 백제왕궁인 익산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된다.

신명나는 '대한민국 농악축제' 열린다

20일 익산왕궁리유적서 개최
익산시는 '제19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20일 오후 4시에 백제왕궁인 익산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과 연계해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4개 농악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의 신명과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농악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진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다양한 공연·체험 유치 '결실'

지속 노력으로 공모사업 8개 선정... 국비 2억2500만원 확보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유희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공인 7건,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문화유산 체험사업 1건 등 총 8건이 선정되어 국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유통, 지역 맞춤형중소규모콘텐츠유통 공모사업에 소리극 '종이꽃', '두할망의본풀이', 국악가곡극 '벨벳토끼', '국악관현악단 코라이즌 콘서트 Break out and Fly', 가곡극 '개굴개굴 고래고래', 국악가곡극 '달들의 꿈, 날다', 가곡뮤지컬 '하얀 마음 하얀이' 등 총 6개 공연이 선정되었다. 이 공연은 6월부터 12월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

회관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지역순회공연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환상기행'이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 공연은 소규모 악기 편성으로 관현악과 다르게 각 악기의 특징적 연주법과 음색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기가 하기 하면서도 신명나는 곡들로 구성했다. 한편, 무형유산 강·체험·답사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의 향유 공동체 육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인 한국문화재단의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 연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한 '반갑다, 우리 무형유산! 김치담그기, 막걸리빚기' 사업이 선

정되었다. 이 사업은 총 4기수 80명(기수 당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무형유산 중 공동체종목인 김치담그기와 막걸리빚기 체험과 강의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군의 안명자 김치명인이 로컬푸드로 만드는 제철 김치와 재미있는 김치이야기를 펼치고, 막순막동협동조합의 전은경 대표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와 막걸리 이야기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 그동안 오랜 준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이렇게 다양한 공연 체험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부디 많은 완주군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활력을 높여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직원 대상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고객 응대 서비스 마인드 정립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고객 만족 서비스(CS) 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최근 직원 대상 고객 만족 서비스(CS)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가 전주의 이미지'를 주제로 관객들을 대하는 직원 개개인의 태도가 곧 전

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친절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고객 응대 기법 △민원 응대 △고객관리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등으로 진행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연간 1000만여 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공간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고객 응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실용적 출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전문가 양성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실용적 출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47년 3월 15일 창립, 현재 총 712개의 출판사를 회원사로 가진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 단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출판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에 따른 교과목 설계와 구성, 교수 요원 추천 등의 제반 사항과 전주대학교 학생들

의 현장실습 및 전문가 특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정훈 인문콘텐츠대학장은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도시이며, 완관본과 한지 같은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갖고 역사 도시"라며 "전주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함께 협력해 미래의 출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